

불벌더위속 한약상가 '기진맥진'

상반기 출하약재 물동량 많지 않아 소폭 오름세 구기자 햇것 출하로 하락세, 대황기는 상보합세

찌는듯한 불벌더위 속에서 한약상가도 기진맥진. 지리한 여름을 힘겹게 넘기고 있다.

계속되는 거래부진 속에서 그나마 제철을 만난 황기 소비량이 꾸준한 가운데 겨우 체면을 유지해 주고 있는 정도.

올 상반기부터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황기, 천궁, 맥문동, 황금, 산수유 등 일부 국산약재 시세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다소 주춤하는 듯 싶더니 최근 다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장사군들의 '값올리기'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

햇것 출하가 끝난 인진, 박하, 현호색 등 풀잎약재들의 생산량이 해마다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품목시세도 소폭이긴 하나 갈수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산약재 시세가 전반적인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재면 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햇것 출하 무렵중엔 시세가 다소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얼마전 폭우피해 영향으로 1년근 황기 산지인 포천, 연천지역의 피해가 심각해다 작황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선불리 시세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

일부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국산약재 상보합세가 여전하리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이미 출하가 마무리된 지실 맥문동의 경우에도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다소 오름세가 전망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는 9,10월이면 한약상가도 본래의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기대.

구기자

햇것 출하가 시작되면서 7월초 근당(6백g 기준) 1만7천5백원 선에 거래되던 구기자 시세가 1만원대로 푹 떨어졌다. 지난달 27일 청양장에서 2백근 정도의 물량이 1만8천원 선에 출하되기 시작 최근 들어서는 하루장에



◀ 얼마전 집중호우로 경기도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일원의 약용작물 재배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 포천군 일원만해도 황기밭 70% 이상이 이번 폭우로 침수유실됐다. 사진은 포천군 관내 이인기씨 1만5천평 황기밭. 80~90%가 썩어나가 밭을 갈아엎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약용작물의 경우에는 특용작물임에도 인삼이나 과수, 화훼와 달리 별도의 재해보상기준이 없는 실정.

약5천근 정도의 햇구기자가 출하돼 나오고 있다. 예년보다 여름 출하량이 많은 편. 그래서인지 8월12일 장에서는 9천5원선까지 시세가 하락했다.

청양구기자 올 작황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진도는 얼마전 태풍피해로 작황이 순조롭지 못한편. 햇것 출하량도 거의 없다. 앞으로 햇것 출하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청양구기자 시세는 지금보다 다소 빠질것이란 전망.

현호색

지난 7월초 근당(6백g 기준) 8천원선에 거래되던 현호색이 8월초 현재 8천5백원 선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하동이 원산지인 현호색은 올 수확량이 지난해 4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칠 만큼 급감한 때문이다. 하동에서의 현호색을 출하량은 1백여작이 고작. 해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작약

햇것 출하가 시작되면 소폭 오름세. 8월초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의성산이 5천5백원 선, 호남산은 4천원 선이다. 올 가을 역시 작업량이 그리 많지 않을것이란 전망속에 시세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고품질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실

지난 5월부터 본격 출하되기 시작한 지실 수확은 이제 끝물이지만 생산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시세도 자연 오름세를 띠고 있으며 8월초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지실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7천원(중), 9천원(소) 선이다. 내년 봄 햇것 출하가 전까지 지실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내지는 다소 오름세 보일것이란 분석이다.

당귀

소비부진으로 물동량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장사군들의 '값올리기'로 시세가 소폭 오름세. 8월초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5천5백원(통), 6천3백원(절) 선으로, 지난 7월 시세보다 5백원 폭으로 올랐다.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은 탓에 햇것 출하가 전까지는 시세도 더 오를것으로 기대.

천궁

물량이 귀한 토천궁은 근당(6백g 기준) 7천5백원(절) 선보다 1천원 폭으로 오른 8천5백원(절) 선에, 일천궁은 8천원(절) 선이던 7월초보다 다소 떨어진 7천5백원(절)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물량부족 현상으로 폭등세를

보이던 일천궁이 이처럼 값이 푹 떨어진 원인은 식품으로 대량 반입된 수입천궁 때문.

값싼 식품용 수입천궁이 시중에서 한약재로 변칙 유통되면서 근당(6백g 기준) 1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일천궁 시세는 약3천원 폭으로 순식간에 하락했다. 올 상반기 동안 내내 상한가를 기록했던 일천궁은 재배면적이 지난해 보다 상당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본격 수확기인 10월 접어들면서 시세는 더 떨어질 듯.

택사

오는 10월부터 햇것 수확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물동량 귀한 가운데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월초 현재 쪽으로 도매거래되는 경동약령시 시세는 5천원(통), 6천5백원(절) 선으로 근당 4천원(통), 5천5백원(절) 선이던 7월초보다 1천원 폭으로 경총 뛰었다. 택사는 전남 여수 순천 일원, 경북 상주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지만 지금은 산지에서조차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맥문동

예년에 비해 올 봄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았던 맥문동도 소폭 오름세. 8월초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심 맥문동이 근당(6백g 기준) 1만3천원 선, 막막은 1만1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

다. 올 수확량이 많지 않음을 감안, 물량을 갖고 풀지 않은 일부 장사군들의 '장난'으로 시세는 지금보다 더 오를것으로 시장상인들은 내다보고 있다.

황기

여름철 식은땀 흘리는데 보약재로 많이 이용되는 황기는 한약상가 비수기 틈새에서도 제철을 만난듯 소비량이 꾸준하고, 그 바람을 타고 대황기 시세도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초 근당 3만2천원 선이던 6년근 대황기는 8월초 현재 3만5천원 선으로, 1만8천원 선이던 3년근 중황기는 2만3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1년근 소황기는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산 때문인지 활발한 물동량과는 달리 시세는 제자리. 8월초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근당 9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당분간 보합세를 이룰 전망이다.

산수유

산지에서 조차 국내산 산수유는 거의 구하기 어려운 상황. 물량이 없다. 이때문에 최근 쿼터품과 식품용으로 반입된 중국산 산수유도 시중에서 근당(6백g 기준) 1만원~1만2천원 선으로 높은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꽃필 무렵 영하의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구례 산수유 작황은 그리 순조롭지 못한 편. 양평산수유는 그런대로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다는 산지인의 귀뜸이다.

황금

황금 시세가 다시 오름세다. 8월초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1천5백원 선으로 지난 7월초 시세인 9천5백원 보다 무려 2천원 폭으로 상승. 물량 많지 않아 당분간 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하수오

최근 몇년간의 과잉생산으로 지난해 근당(6백g 기준) 2천원 선까지 값이 추락했던 하수오가 올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들어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월초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쪽으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4천3백원, 중품이 3천5백원 선이다. 햇것 수확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다소 오름세가 점쳐지고 있다.

(문)